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APEC 2025 KOREA

보도시점 2025. 10. 22.(수) 12:00 배포 2025. 10. 22.(수) 08:30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책임자	과 장	송준행 (042-481-2264)
		담당자	사무관	권순필 (042-481-2565)



일 러 두 기

□ 이 자료는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내용 참조(부록3)

○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기초적인 자료는 2025년 8월 고용동향('25. 9. 10.)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19년 추가로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까지와 '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전년대비 증감 비교가 가능합니다.

※ 2019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관련 설명 참조('19.10.31.)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비중은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합니다.

※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참조(참고2)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24년간 자료를 소급보정하였고, 2025년부터 신분류에 따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으며, 마이크로데이터는 MDIS(<http://mdis.kostat.go.kr>)를 통해 2025년 11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 차

<input type="checkbox"/> 2025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1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5
나. 한시적 근로자	6
다. 시간제 근로자	7
라. 비전형 근로자	9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	10
나. 연령계층별 특성	11
다. 교육정도별 특성	12
라. 산업별 특성	13
마. 직업별 특성	14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15
나. 평균 근속기간	16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16
라.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17
마.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17
바. 사회보험 가입률	18
사. 근로복지 수혜율	19
아. 교육·훈련 경험 비율	19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	20
차. 적용임금 형태	21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22
<input type="checkbox"/> 참고	
1. OECD Temporary Workers	23
2.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24
3. 종사상지위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25
<input type="checkbox"/> 통계표	26
<input type="checkbox"/> 부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33
2.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35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37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



비정규직 규모·비중

전년동월대비

• 856만 8천명 (11만명 ↑)
38.2% (동일)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임금근로자 100.0%



정규직 61.8%

1,384만 5천명
(16만명 ↑)

비정규직* 38.2%

856만 8천명
(11만명 ↑)

한시적 26.1%



584만 8천명
(22만명 ↑)

시간제 18.9%



422만 9천명
(2만 7천명 ↓)

비전형 8.2%



183만 4천명
(7만명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한시적, 시간제, 비전형)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중복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 주당 평균 취업시간

28.2시간 (0.6시간 ↑)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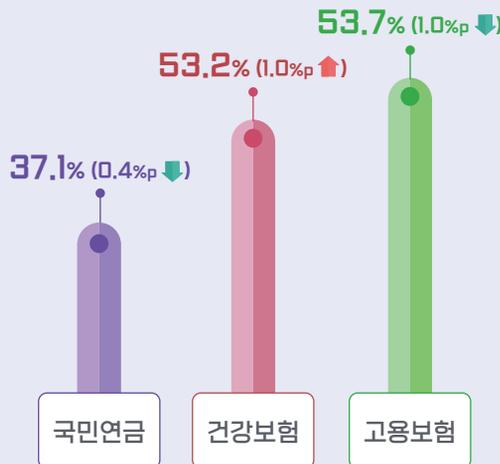
208만 8천원 (4만원 ↑)



▶ 현 직장의 평균 근속기간

2년 11개월 (1개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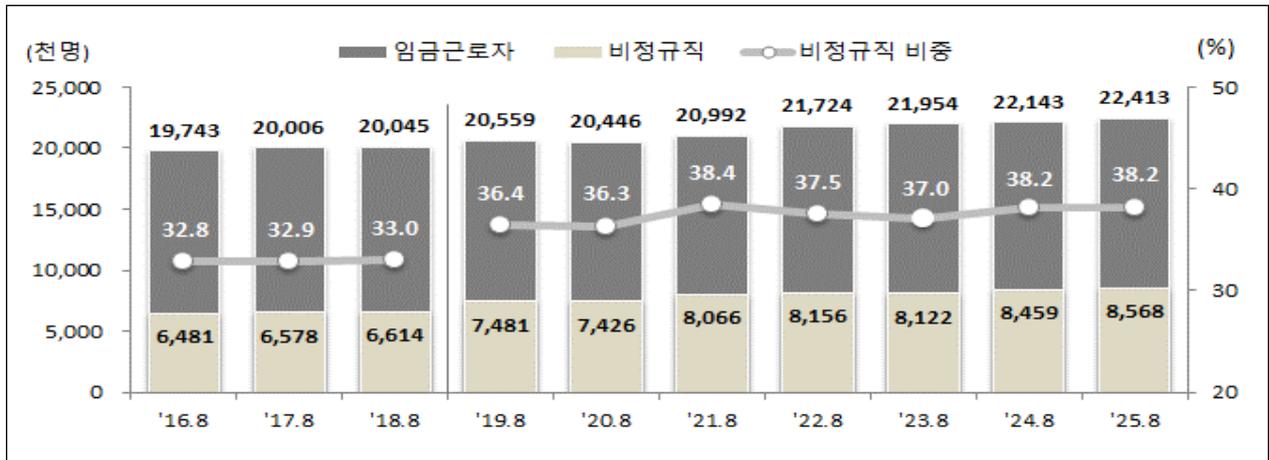
사회보험 가입률



2025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 증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8.2%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 정규직 근로자는 1,38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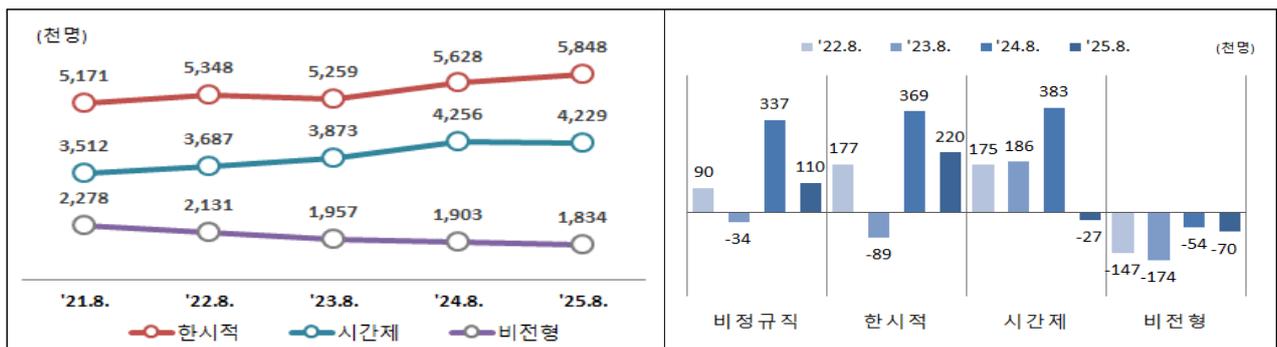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



※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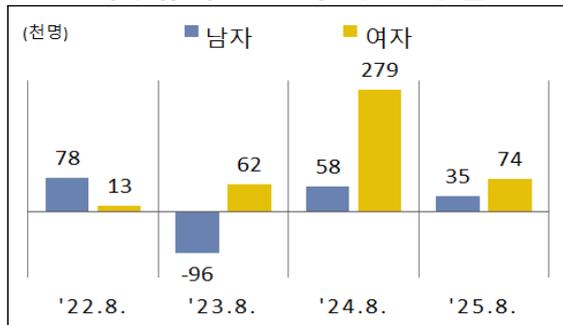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의 세부특성별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는 584만 8천명(68.2%), 시간제 근로자 422만 9천명(49.4%), 비전형 근로자는 183만 4천명(21.4%)임
 - 전년동월대비 한시적 근로자는 22만명 증가, 시간제 근로자는 2만 7천명, 비전형 근로자는 7만명 각각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및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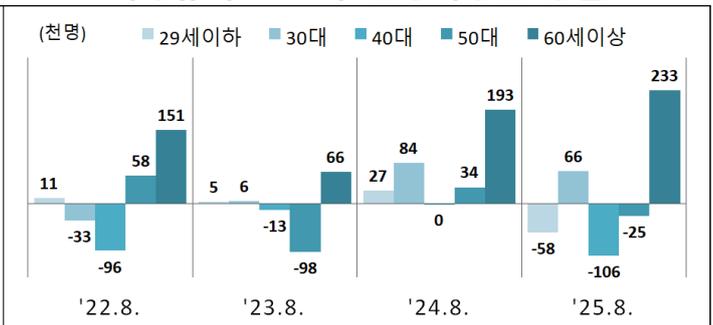


- 성별로는 남자가 36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 증가, 여자는 491만 8천명으로 7만 4천명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 304만 4천명(35.5%), 50대 163만 6천명(19.1%), 29세이하 154만 5천명(18.0%) 순임
 - 전년동월대비 60세이상은 23만 3천명, 30대 6만 6천명 각각 증가, 40대는 10만 6천명, 29세이하 5만 8천명, 50대 2만 5천명 각각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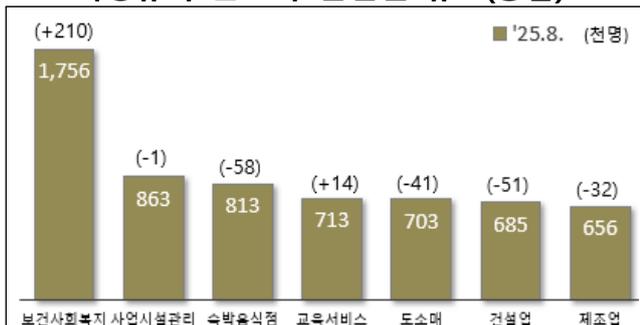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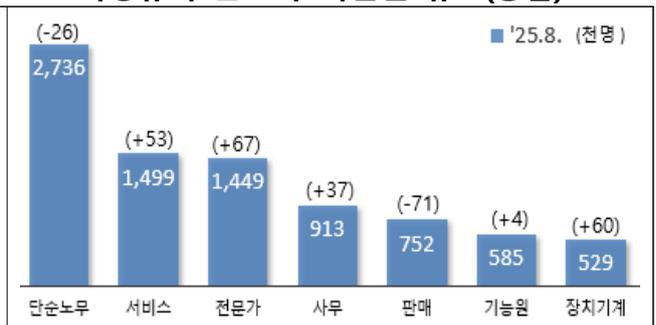


-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175만 6천명(20.5%), 사업시설관리업 86만 3천명(10.1%), 숙박음식점업 81만 3천명(9.5%) 순임
 - 전년동월대비 보건사회복지업은 21만명 증가, 숙박음식점업은 5만 8천명, 건설업은 5만 1천명 각각 감소함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273만 6천명(31.9%), 서비스종사자 149만 9천명(17.5%),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44만 9천명(16.9%) 순임
 - 전문가및관련종사자는 6만 7천명,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만명, 서비스종사자 5만 3천명 각각 증가, 판매종사자는 7만 1천명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산업별 규모(증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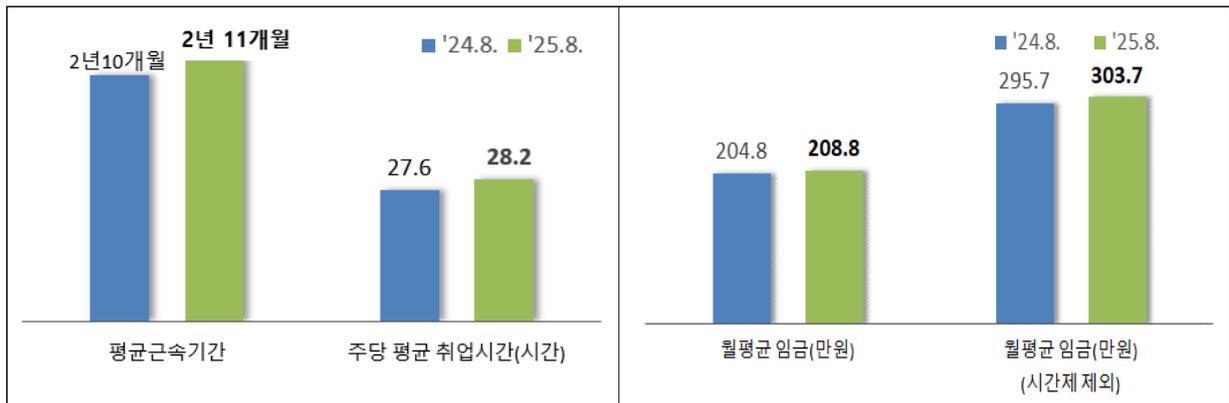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별 규모(증감)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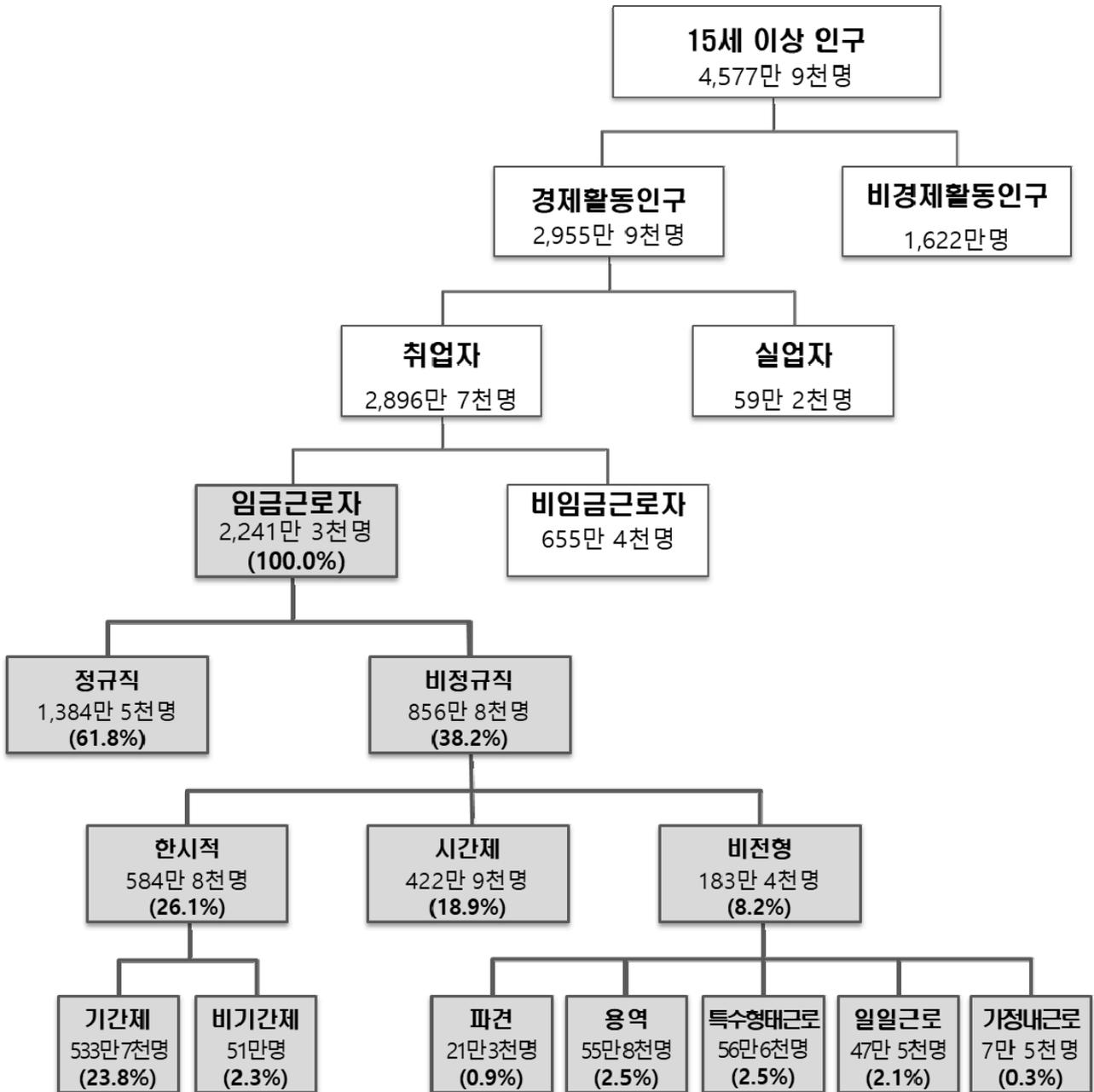
-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67.8%로 1.2%p 상승
 - 자발적 선택 사유 중 「근로조건에 만족」이 57.9%로 가장 높으며, 전년동월대비 2.0%p 하락함
-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1개월로 1개월 증가함
-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28.2시간으로 0.6시간 증가함
-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08만 8천원으로 4만원 증가함
 -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303만 7천원으로 8만원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여건 >



-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37.1%) 0.4%p, 고용보험(53.7%) 1.0%p 각각 하락, 건강보험(53.2%)은 1.0%p 상승함
-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46.0%) 0.4%p, 상여금(39.7%) 0.4%p, 시간외수당(31.2%) 0.6%p 각각 하락, 유급휴일(39.0%) 0.3%p 상승함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6.6%로 전년 동월대비 0.6%p 상승, 이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48.5%로 0.8%p 하락함

<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2025년 8월)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2025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025년 8월 임금근로자는 2,24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명 증가함
 - 정규직 근로자는 1,384만 5천명으로 16만명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 8천명으로 11만명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2%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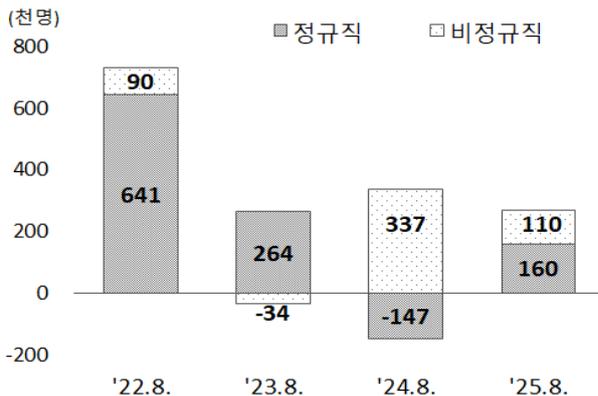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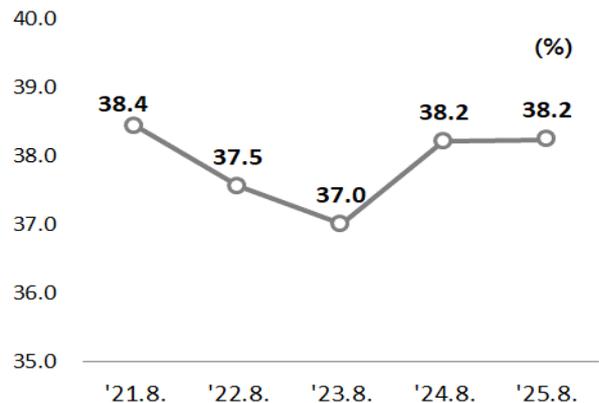
	2024. 8.		2025. 8.		증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 임금근로자 >	22,143	100.0	22,413	100.0	270	0.0
○ 정규직	13,685	61.8	13,845	61.8	160	0.0
○ 비정규직 ¹⁾	8,459	38.2	8,568	38.2	110	0.0
- 한시적	5,628	25.4	5,848	26.1	220	0.7
- 시간제	4,256	19.2	4,229	18.9	-27	-0.3
- 비전형	1,903	8.6	1,834	8.2	-70	-0.4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비중은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 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증감 >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



나. 한시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는 58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명 증가함
 -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는 533만 7천명으로 33만 9천명 증가, 비기간제 근로자는 51만명으로 11만 9천명 감소함
 - 한시적 근로자 중 남자는 257만명으로 10만명 증가, 여자는 327만 8천명으로 12만명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비중은 68.2%로 1.7%p 상승함

< 한시적 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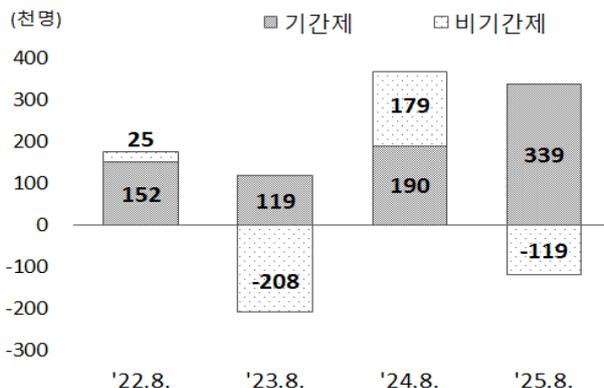
(단위: 천명, %, %p)

	2024. 8.		2025. 8.		증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증감	비중
< 전체 비정규직 >	8,459	100.0	8,568	100.0	110	0.0
○ 한시적근로자	5,628	66.5	5,848	68.2	220	1.7
- 기간제 ¹⁾	4,999	59.1	5,337	62.3	339	3.2
- 비기간제 ²⁾	629	7.4	510	6.0	-119	-1.4
< 남자 비정규직 >	3,615	100.0	3,650	100.0	35	0.0
○ 한시적근로자	2,470	68.3	2,570	70.4	100	2.1
- 기간제 ¹⁾	2,213	61.2	2,320	63.5	107	2.3
- 비기간제 ²⁾	258	7.1	250	6.9	-7	-0.2
< 여자 비정규직 >	4,844	100.0	4,918	100.0	74	0.0
○ 한시적근로자	3,158	65.2	3,278	66.6	120	1.4
- 기간제 ¹⁾	2,786	57.5	3,018	61.4	232	3.9
- 비기간제 ²⁾	372	7.7	260	5.3	-11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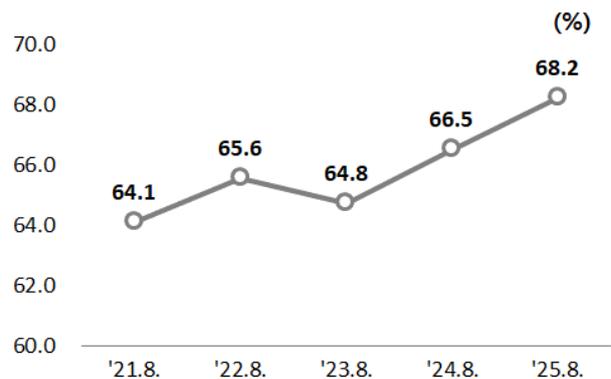
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2) 비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세부유형별 증감 >



< 비정규직 대비 한시적 근로자 비중 >



다.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42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함
 - 시간제 근로자 중 남자는 118만 7천명으로 5만 3천명 감소, 여자는 304만 2천명으로 2만 6천명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49.4%로 0.9%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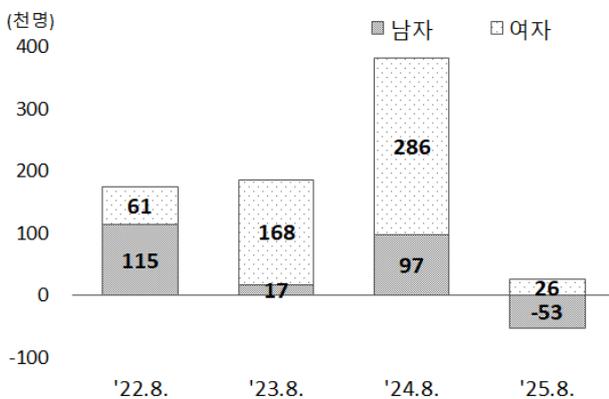
< 시간제 근로자¹⁾ >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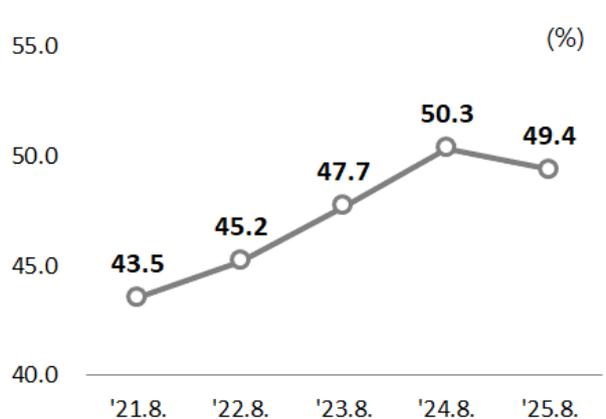
	2024. 8.		2025. 8.		증감	비중
	천명	비중	천명	비중		
< 전체 비정규직 >	8,459	100.0	8,568	100.0	110	0.0
○ 시간제 근로자	4,256	50.3	4,229	49.4	-27	-0.9
< 남자 비정규직 >	3,615	100.0	3,650	100.0	35	0.0
○ 시간제 근로자	1,240	34.3	1,187	32.5	-53	-1.8
< 여자 비정규직 >	4,844	100.0	4,918	100.0	74	0.0
○ 시간제 근로자	3,016	62.3	3,042	61.9	26	-0.4

1)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성별 증감 >



< 비정규직 대비 시간제 근로자 비중 >



- (고용안정성)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는 56.4%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함

*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 전년동월대비 남자(46.0%)와 여자(60.5%) 각각 4.2%p, 1.6%p 하락함

- (평균 근속기간)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4개월로 전년 동월과 동일함

- 전년동월대비 남자(2년 1개월)는 근속기간이 1개월 감소, 여자(2년 5개월)는 1개월 증가함

- (주당 평균 취업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8.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함

- 전년동월대비 남자(18.9시간)와 여자(17.8시간) 모두 0.1시간 감소함

- (월평균임금) 시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임금은 111만 5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만 4천원 감소함

- 전년동기대비 남자(119만 8천원)는 5만 6천원, 여자(108만 2천원)는 2만 5천원 각각 감소함

< 시간제 근로자의 세부 근로조건 >

(단위: %, %p, 시간, 만원)

	고용안정성	평균 근속기간	주당 평균 취업시간	월평균임금 ¹⁾
2024. 8.	58.6	2년 4개월	18.3	114.9
남자	50.2	2년 2개월	19.0	125.4
여자	62.1	2년 4개월	17.9	110.7
2025. 8.	56.4	2년 4개월	18.1	111.5
남자	46.0	2년 1개월	18.9	119.8
여자	60.5	2년 5개월	17.8	108.2
증감	-2.2	0개월	-0.2	-3.4
남자	-4.2	-1개월	-0.1	-5.6
여자	-1.6	1개월	-0.1	-2.5

1) 주된 직장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으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음

라.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는 18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명 감소함
 - 비전형 근로자 중 일일 근로자(47만 5천명)는 9만 4천명 감소, 용역 근로자(55만 8천명)는 1만 6천명 증가함
 - 비전형 근로자 중 남자(100만 6천명)는 5만 9천명, 여자(82만 8천명)는 1만명 각각 감소함

< 비전형 근로자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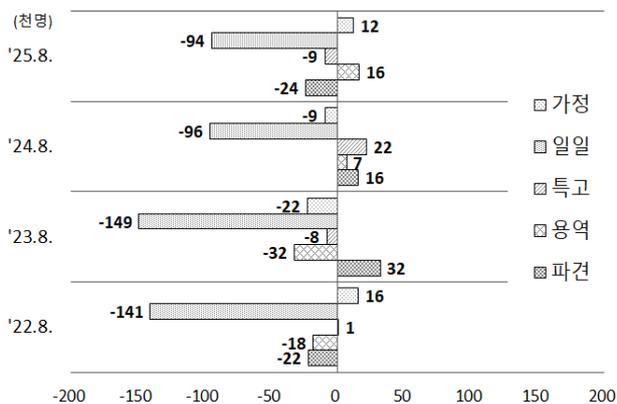
(단위: 천명, %, %p)

	비정규직	비전형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일일 근로자	가정내 근로자
2024. 8.	8,459 (100.0)	1,903 (22.5)	237 (2.8)	541 (6.4)	576 (6.8)	570 (6.7)	63 (0.7)
남자	3,615 (100.0)	1,065 (29.5)	124 (3.4)	299 (8.3)	245 (6.8)	445 (12.3)	14 (0.4)
여자	4,844 (100.0)	838 (17.3)	113 (2.3)	242 (5.0)	331 (6.8)	125 (2.6)	49 (1.0)
2025. 8.	8,568 (100.0)	1,834 (21.4)	213 (2.5)	558 (6.5)	566 (6.6)	475 (5.5)	75 (0.9)
남자	3,650 (100.0)	1,006 (27.6)	107 (2.9)	304 (8.3)	247 (6.8)	368 (10.1)	19 (0.5)
여자	4,918 (100.0)	828 (16.8)	105 (2.1)	254 (5.2)	319 (6.5)	108 (2.2)	57 (1.2)
증감	110 (0.0)	-70 (-1.1)	-24 (-0.3)	16 (0.1)	-9 (-0.2)	-94 (-1.2)	12 (0.2)
남자	35 (0.0)	-59 (-1.9)	-16 (-0.5)	5 (0.0)	3 (0.0)	-78 (-2.2)	4 (0.1)
여자	74 (0.0)	-10 (-0.5)	-8 (-0.2)	11 (0.2)	-12 (-0.3)	-17 (-0.4)	8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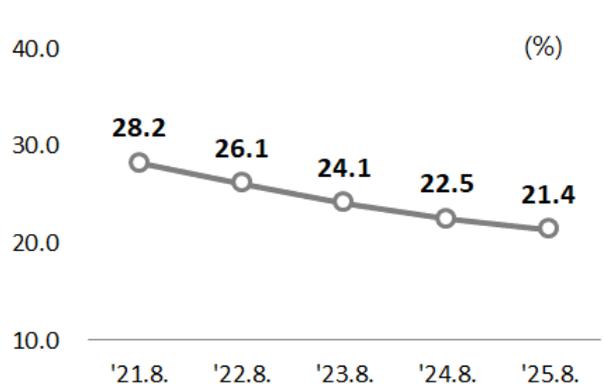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비중은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 비전형 근로자 세부유형별 증감 >



< 비정규직 대비 비전형 근로자 비중 >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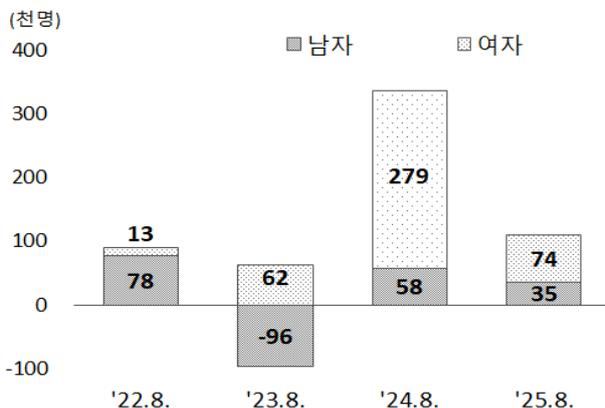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남자는 36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 증가, 여자는 491만 8천명으로 7만 4천명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한시적 근로자가 10만명 증가, 여자는 한시적 근로자(12만명), 시간제 근로자(2만 6천명)가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남자의 비중은 42.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여자는 57.4%로 0.1%p 상승함

<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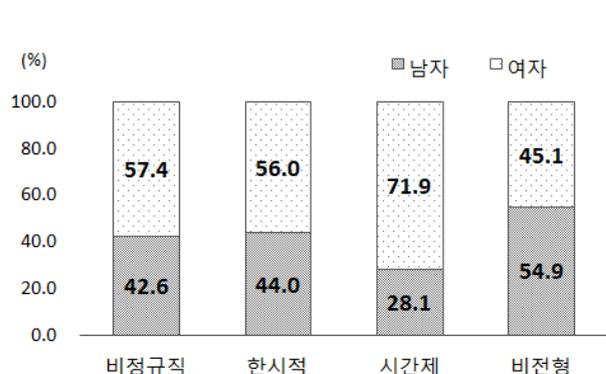
(단위: 천명, %, %p)

	2024. 8.				2025.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459	5,628	4,256	1,903	8,568	5,848	4,229	1,834	110	220	-27	-70
남자	3,615	2,470	1,240	1,065	3,650	2,570	1,187	1,006	35	100	-53	-59
여자	4,844	3,158	3,016	838	4,918	3,278	3,042	828	74	120	26	-10
< 비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남자	42.7	43.9	29.1	56.0	42.6	44.0	28.1	54.9	-0.1	0.1	-1.1	-1.1
여자	57.3	56.1	70.9	44.0	57.4	56.0	71.9	45.1	0.1	-0.1	1.1	1.1

<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증감 >



< 2025. 8. 성별 근로형태별 비중 >



나. 연령계층별 특성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는 60세 이상이 304만 4천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163만 6천명, 29세이하 154만 6천명 순임
 - 전년동월대비 60세이상은 23만 3천명, 30대는 6만 6천명 각각 증가, 40대(-10만 6천명), 29세이하(-5만 8천명), 50대(-2만 5천명)는 감소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60세이상 비중은 35.5%로 전년동월대비 2.3%p 증가, 40대(14.1%), 29세이하(18.0%)는 1.4%p, 1.0%p 각각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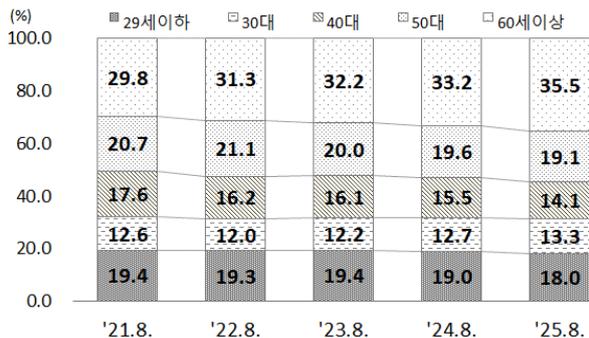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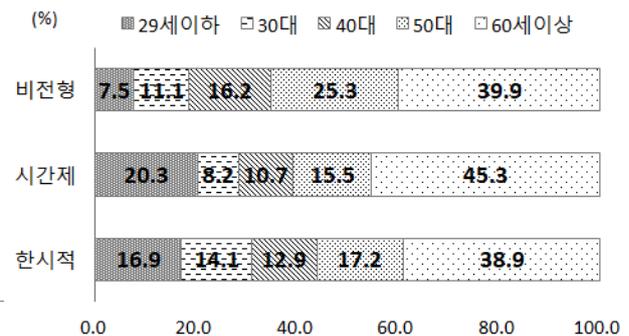
	2024. 8.				2025.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459	5,628	4,256	1,903	8,568	5,848	4,229	1,834	110	220	-27	-70
15~29세	1,604	994	944	165	1,546	991	858	137	-58	-4	-86	-28
· 15~19세	143	72	128	10*	114	52	105	8*	-29	-21	-22	-2
· 20~29세	1,461	922	817	155	1,431	939	753	129	-29	17	-64	-26
30~39세	1,072	762	353	200	1,139	824	348	203	66	62	-5	3
40~49세	1,310	798	488	342	1,204	753	451	298	-106	-45	-37	-45
50~59세	1,661	997	700	491	1,636	1,005	656	464	-25	8	-43	-27
60세이상	2,812	2,076	1,771	705	3,044	2,275	1,916	732	233	199	145	27
· 60~69세	1,750	1,172	860	533	1,839	1,264	901	543	88	92	41	10
· 70세이상	1,061	905	911	172	1,205	1,012	1,016	189	144	107	104	17
< 비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15~29세	19.0	17.7	22.2	8.7	18.0	16.9	20.3	7.5	-1.0	-0.8	-1.9	-1.2
· 15~19세	1.7	1.3	3.0	0.5	1.3	0.9	2.5	0.4	-0.4	-0.4	-0.5	-0.1
· 20~29세	17.3	16.4	19.2	8.2	16.7	16.1	17.8	7.0	-0.6	-0.3	-1.4	-1.2
30~39세	12.7	13.5	8.3	10.5	13.3	14.1	8.2	11.1	0.6	0.6	-0.1	0.6
40~49세	15.5	14.2	11.5	18.0	14.1	12.9	10.7	16.2	-1.4	-1.3	-0.8	-1.8
50~59세	19.6	17.7	16.4	25.8	19.1	17.2	15.5	25.3	-0.5	-0.5	-0.9	-0.5
60세이상	33.2	36.9	41.6	37.0	35.5	38.9	45.3	39.9	2.3	2.0	3.7	2.9
· 60~69세	20.7	20.8	20.2	28.0	21.5	21.6	21.3	29.6	0.8	0.8	1.1	1.6
· 70세이상	12.5	16.1	21.4	9.0	14.1	17.3	24.0	10.3	1.6	1.2	2.6	1.3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비중 >



< 2025. 8. 근로형태별 연령계층별 비중 >



다. 교육정도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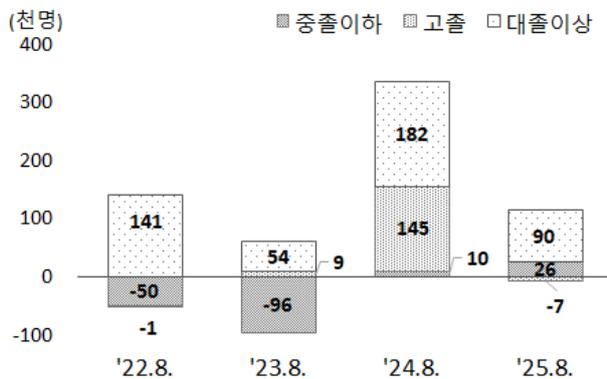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규모는 고졸이 362만 9천명으로 가장 많고, 대졸 이상(330만 7천명), 중졸이하(163만 2천명) 순임
 - 전년동월대비 대졸이상은 9만명, 중졸이하는 2만 6천명 각각 증가함
- 한시적 근로자는 대졸이상 비중이 40.1%로 가장 높고,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는 고졸 비중이 42.7%,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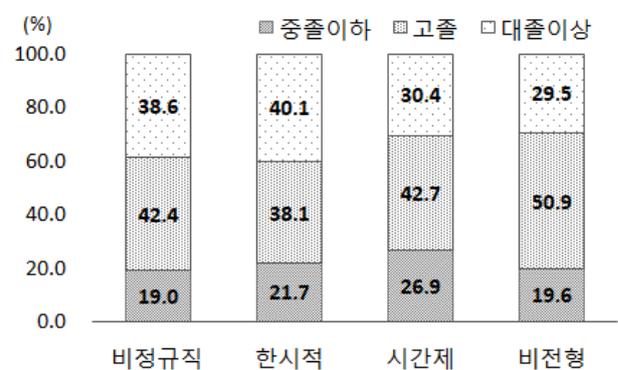
(단위: 천명, %, %p)

	2024. 8.				2025.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459	5,628	4,256	1,903	8,568	5,848	4,229	1,834	110	220	-27	-70
중졸이하	1,606	1,188	1,108	390	1,632	1,270	1,138	359	26	82	30	-31
고졸	3,636	2,199	1,795	962	3,629	2,230	1,804	934	-7	30	9	-28
대졸이상	3,217	2,241	1,352	552	3,307	2,348	1,287	541	90	107	-66	-11
< 비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중졸이하	19.0	21.1	26.0	20.5	19.0	21.7	26.9	19.6	0.0	0.6	0.9	-0.9
고졸	43.0	39.1	42.2	50.5	42.4	38.1	42.7	50.9	-0.6	-1.0	0.5	0.4
대졸이상	38.0	39.8	31.8	29.0	38.6	40.1	30.4	29.5	0.6	0.3	-1.4	0.5

<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정도별 증감 >



< 2025. 8. 교육정도별 근로형태별 비중 >



라. 산업별 특성

-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업 175만 6천명(20.5%), 사업시설 지원업 86만 3천명(10.1%), 숙박음식업 81만 3천명(9.5%) 순임
- 전년동월대비 보건사회복지업(21만명), 운수창고업(3만 9천명) 등은 증가, 숙박음식업(-5만 8천명), 건설업(-5만 1천명), 도소매업(-4만 1천명) 등은 감소함
 - 보건사회복지업은 한시적 근로자 16만 1천명, 시간제 근로자 17만 1천명 각각 증가, 건설업은 비전형 근로자 7만 7천명 감소, 숙박음식업은 시간제 근로자 5만 4천명 감소함

< 산업별¹⁾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4. 8.					2025. 8.					증감				
	비정규직 비중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비중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비중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전체 >	8,459	100.0	5,628	4,256	1,903	8,568	100.0	5,848	4,229	1,834	110	0.0	220	-27	-70
농 립 어 업	63	0.7	35	21	24	61	0.7	36*	17	22*	-2	0.0	1	-4	-2
제 조 업	689	8.1	535	172	56	656	7.7	540	131	44	-32	-0.4	5	-42	-12
건 설 업	736	8.7	366	139	375	685	8.0	383	142	298	-51	-0.7	17	2	-77
도 소 매 업	745	8.8	371	439	134	703	8.2	364	415	103	-41	-0.6	-7	-24	-30
운 수 창 고 업	303	3.6	173	101	103	342	4.0	206	114	102	39	0.4	33	13	-1
숙 박 음 식 업	871	10.3	414	710	44	813	9.5	382	657	43	-58	-0.8	-32	-54	-1
정 보 통 신 업	206	2.4	162	63	26	219	2.6	166	53	42	13	0.2	4	-10	16
금 융 보 험 업	311	3.7	89	69	243	328	3.8	89	51	243	17	0.1	-1	-17	0
부 동 산 업	188	2.2	132	68	42	205	2.4	153	64	48	18	0.2	21	-3	6
전문과학기술업	261	3.1	200	91	18*	250	2.9	190	81	15*	-11	-0.2	-10	-10	-3
사업시설지원업	864	10.2	620	218	635	863	10.1	606	233	643	-1	-0.1	-14	15	8
공 공 행 정	413	4.9	394	299	4*	398	4.6	387	267	4*	-15	-0.3	-7	-32	1
교 육 서 비 스	700	8.3	501	437	46	713	8.3	535	426	54	14	0.0	34	-11	8
보건사회복지업	1,546	18.3	1,299	1,093	47	1,756	20.5	1,459	1,264	58	210	2.2	161	171	11
예 술 스포 츠	200	2.4	134	113	35	207	2.4	134	116	26	7	0.0	0	4	-10
협회기타서비스	270	3.2	148	163	57	269	3.1	165	142	71	-2	-0.1	17	-21	14
기 타 ²⁾	94	1.1	55	61	15	100	1.2	52	56	18	7	0.1	-3	-6	3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산업분류 명칭은 약칭을 사용(부록2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2) 광업(B), 전기가스증기(D), 수도하수폐기업(E), 가구내고용활동(T), 국제외국기관(U)이 포함됨

마. 직업별 특성

-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 273만 6천명(31.9%), 서비스종사자 149만 9천명(1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4만 9천명(16.9%) 순임
- 전년동월대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만 7천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6만명), 서비스종사자(5만 3천명) 등은 증가, 판매종사자(-7만 1천명), 단순노무종사자(-2만 6천명) 등은 감소함

<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4. 8.					2025. 8.					증감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비중					비중					비중				
< 전체 >	8,459	100.0	5,628	4,256	1,903	8,568	100.0	5,848	4,229	1,834	110	0.0	220	-27	-70
관 리 자	75	0.9	60	13*	7*	64	0.7	54	9*	4*	-11	-0.2	-5	-4	-3
전 문 가 및 관 련 종 사 자	1,382	16.3	1,057	581	117	1,449	16.9	1,114	567	132	67	0.6	57	-14	15
사 무 종 사 자	876	10.4	663	340	83	913	10.7	695	340	83	37	0.3	32	1	1
서 비 스 종 사 자	1,446	17.1	872	1,054	122	1,499	17.5	931	1,107	111	53	0.4	58	53	-12
판 매 종 사 자	823	9.7	314	438	349	752	8.8	255	368	337	-71	-0.9	-59	-70	-13
농 립 어 업 숙 련 종 사 자	47	0.6	41*	8*	7*	42	0.5	36*	6*	5*	-4	-0.1	-5	-2	-1
기 능 원 및 관 련 기 능 종 사 자	581	6.9	353	89	228	585	6.8	377	99	209	4	-0.1	24	9	-19
장 치 · 기 계 조 작 및 조 립 종 사 자	469	5.5	349	85	122	529	6.2	421	72	116	60	0.7	72	-13	-6
단 순 노 무 종 사 자	2,762	32.7	1,920	1,648	867	2,736	31.9	1,965	1,663	837	-26	-0.8	45	14	-30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지난주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67.8%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함
 - 전년동월대비 자발적 선택 비율은 한시적 근로자(69.0%) 1.3%p, 비전형 근로자(59.1%) 2.7%p 각각 상승, 시간제 근로자(60.9%)는 0.2%p 하락
- 자발적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48.6%)',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57.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비자발적 사유로는 정규직 근로자(76.8%), 비정규직 근로자(73.3%) 모두 '당장 수입이 필요' 비율이 가장 높음

< 지난주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단위: %, %p)

	2024. 8.					2025. 8.					증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 자발적 사유	(91.3)	(66.6)	(67.7)	(61.1)	(56.4)	(91.5)	(67.8)	(69.0)	(60.9)	(59.1)	(0.2)	(1.2)	(1.3)	(-0.2)	(2.7)
· 근로조건에 만족	46.6	59.9	61.5	61.6	58.6	46.5	57.9	59.6	61.2	54.6	-0.1	-2.0	-1.9	-0.4	-4.0
· 안정적인 일자리	48.5	21.6	24.7	12.9	18.0	48.6	22.8	26.0	13.2	19.2	0.1	1.2	1.3	0.3	1.2
· 직장이동 등 ¹⁾	3.4	11.7	9.2	18.1	6.7	3.5	12.1	10.2	17.7	8.5	0.1	0.4	1.0	-0.4	1.8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²⁾	1.5	6.8	4.6	7.3	16.7	1.5	7.2	4.3	8.0	17.6	0.0	0.4	-0.3	0.7	0.9
- 비자발적 사유	(8.7)	(33.4)	(32.3)	(38.9)	(43.6)	(8.5)	(32.2)	(31.0)	(39.1)	(40.9)	(-0.2)	(-1.2)	(-1.3)	(0.2)	(-2.7)
· 당장 수입이 필요	76.2	74.3	74.6	70.7	82.7	76.8	73.3	74.8	68.6	80.5	0.6	-1.0	0.2	-2.1	-2.2
·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³⁾	14.1	14.8	15.6	15.9	10.8	14.1	15.3	15.3	17.5	11.8	0.0	0.5	-0.3	1.6	1.0
· 직장이동 등 ¹⁾	7.4	7.7	7.5	10.0	2.1	6.3	8.1	7.3	10.3	3.6	-1.1	0.4	-0.2	0.3	1.5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²⁾	2.2	3.2	2.4	3.4	4.4	2.8	3.3	2.6	3.7	4.1	0.6	0.1	0.2	0.3	-0.3

주) ()는 일자리 선택 동기 전체 비중, 그 외는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 각각에 대한 비중임

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 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포함

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포함

3)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포함

나. 평균 근속기간

-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11개월로 전년동월대비 1개월 증가함
 - 한시적 근로자(2년 7개월)는 1개월 증가, 시간제 근로자(2년 4개월), 비전형 근로자(3년 5개월)는 전년동월과 동일함
- 근속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50.6%)은 1.0%p 하락, 1~3년 미만(23.1%) 0.4%p, 3년 이상(26.2%)은 0.5%p 각각 상승함

<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비중 >

(단위: %, %p)

	2024. 8.			2025. 8.			증감					
	평균 근속 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근속 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평균 근속 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 임금근로자 >	6년 4개월	29.1	21.4	49.6	6년 6개월	28.0	21.3	50.7	2개월	-1.1	-0.1	1.1
○ 정 규 직	8년 6개월	15.1	20.5	64.4	8년 9개월	13.8	20.2	66.0	3개월	-1.3	-0.3	1.6
○ 비정규직	2년 10개월	51.6	22.7	25.7	2년 11개월	50.6	23.1	26.2	1개월	-1.0	0.4	0.5
- 한 시 적	2년 6개월	53.0	24.6	22.4	2년 7개월	53.6	23.3	23.1	1개월	0.6	-1.3	0.7
· 기 간 제	2년 7개월	52.8	24.0	23.2	2년 7개월	53.8	23.1	23.1	0개월	1.0	-0.9	-0.1
· 비기간제	1년 9개월	54.8	29.2	15.9	2년 7개월	50.9	26.2	22.9	10개월	-3.9	-3.0	7.0
- 시 간 제	2년 4개월	58.9	20.2	20.9	2년 4개월	57.5	21.8	20.8	0개월	-1.4	1.6	-0.1
- 비 전 형	3년 5개월	51.9	17.0	31.1	3년 5개월	49.5	18.8	31.7	0개월	-2.4	1.8	0.6

주) 근속기간별 비중 합은 100.0임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5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28.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0.6시간 각각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29.2시간)는 0.8시간, 비전형 근로자(33.7시간)는 0.6시간 각각 증가, 시간제 근로자(18.1시간)는 0.2시간 감소함

< 주당 평균 취업시간¹⁾ >

(단위: 시간)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4. 8.	32.4	35.4	27.6	28.4	28.3	30.0	18.3	33.1	
2025. 8.	33.4	36.5	28.2	29.2	28.9	31.8	18.1	33.7	
증감	1.0	1.1	0.6	0.8	0.6	1.8	-0.2	0.6	

1)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라.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320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만 7천원 증가함
 - 정규직 근로자는 389만 6천원으로 10만원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는 208만 8천원으로 4만원 증가함
 -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 7천원으로 8만원 증가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9만 1천원, 시간제 근로자는 111만 5천원, 비전형 근로자는 240만 1천원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대비 한시적 근로자는 3만 6천원, 비전형 근로자는 7만 5천원 각각 증가, 시간제 근로자는 3만 4천원 감소함

< 근로형태별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¹⁾ >

(단위: 만원,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전형			
			시간제제외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4. 6~8월 평균	312.8	379.6	204.8	295.7	215.5	218.9	188.9	114.9	232.6
'25. 6~8월 평균	320.5	389.6	208.8	303.7	219.1	218.4	225.9	111.5	240.1
증감 (증감률)	7.7 (2.5)	10.0 (2.6)	4.0 (2.0)	8.0 (2.7)	3.6 (1.7)	-0.5 (-0.2)	37.0 (19.6)	-3.4 (-3.0)	7.5 (3.2)

1) 주된 직장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으로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이 고려되지 않음

마.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임금근로자의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81.9%로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함
 - 정규직 근로자(82.7%) 0.7%p, 비정규직 근로자(80.5%) 1.7%p 각각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88.5%) 0.3%p, 시간제 근로자(76.1%)는 1.6%p, 비전형 근로자(68.6%)는 3.2%p 각각 상승함

< 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단위: %, %p)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전형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2024. 8.	80.8	82.0	78.8	88.2	91.0	66.4
2025. 8.	81.9	82.7	80.5	88.5	90.6	67.1
증감	1.1	0.7	1.7	0.3	-0.4	0.7

바. 사회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68.5%) 0.3%p, 고용보험(76.2%) 0.8%p 각각 하락, 건강보험(79.0%) 0.4%p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37.1%) 0.4%p, 고용보험(53.7%) 1.0%p 각각 하락, 건강보험(53.2%)은 1.0%p 상승함
 - 한시적 근로자는 국민연금(43.9%) 0.7%p, 고용보험(56.2%) 2.3%p 각각 하락, 건강보험(62.1%)은 전년동월과 동일함
 - 시간제 근로자는 국민연금(19.1%) 1.9%p, 고용보험(33.0%) 1.7%p 각각 하락, 건강보험(33.4%)은 0.3%p 상승함
 - 비전형 근로자는 국민연금(18.6%) 0.3%p, 건강보험(39.7%) 3.8%p, 고용보험(54.6%) 1.8%p 각각 상승함

< 사회보험 가입률 >

(단위: %, %p)

	2024. 8.			2025. 8.			증감		
	국민 연금 ¹⁾²⁾	건강 보험 ¹⁾	고용 보험 ³⁾	국민 연금 ¹⁾²⁾	건강 보험 ¹⁾	고용 보험 ³⁾	국민 연금 ¹⁾²⁾	건강 보험 ¹⁾	고용 보험 ³⁾
< 임금근로자 >	68.8	78.6	77.0	68.5	79.0	76.2	-0.3	0.4	-0.8
○ 정 규 직	88.1	95.0	92.3	87.9	95.0	91.8	-0.2	0.0	-0.5
○ 비정규직	37.5	52.2	54.7	37.1	53.2	53.7	-0.4	1.0	-1.0
- 한 시 적	44.6	62.1	58.5	43.9	62.1	56.2	-0.7	0.0	-2.3
· 기 간 제	46.7	65.0	60.0	44.8	63.9	57.1	-1.9	-1.1	-2.9
· 비기간제	27.8	38.9	46.6	34.2	43.2	47.5	6.4	4.3	0.9
- 시 간 제	21.0	33.1	34.7	19.1	33.4	33.0	-1.9	0.3	-1.7
- 비 전 형	18.3	35.9	52.8	18.6	39.7	54.6	0.3	3.8	1.8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사. 근로복지 수혜율

-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전년동월대비 퇴직급여(76.6%) 0.2%p, 상여금(70.2%) 0.1%p 각각 하락, 유급휴일(68.8%)은 0.3%p 상승함
- 비정규직 근로자는 퇴직급여(46.0%) 0.4%p, 상여금(39.7%) 0.4%p, 시간외 수당(31.2%) 0.6%p 각각 하락, 유급휴일(39.0%)은 0.3%p 상승함

< 근로복지 수혜율 >

(단위: %, %p)

	2024. 8.				2025. 8.				증감			
	퇴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¹⁾	퇴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¹⁾	퇴직 급여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휴가) ¹⁾
< 임금근로자 >	76.8	70.3	54.6	68.5	76.6	70.2	54.6	68.8	-0.2	-0.1	0.0	0.3
○ 정 규 직	95.6	89.0	68.7	86.9	95.6	89.0	69.1	87.2	0.0	0.0	0.4	0.3
○ 비정규직	46.4	40.1	31.8	38.7	46.0	39.7	31.2	39.0	-0.4	-0.4	-0.6	0.3
- 한 시 적	53.9	44.3	36.7	47.6	52.6	44.0	35.5	47.9	-1.3	-0.3	-1.2	0.3
· 기 간 제	56.8	46.8	37.8	51.1	54.3	44.9	35.8	50.0	-2.5	-1.9	-2.0	-1.1
· 비기간제	30.5	24.8	27.6	19.2	35.0	35.0	32.0	26.2	4.5	10.2	4.4	7.0
- 시 간 제	30.3	26.2	19.8	20.0	29.1	24.0	18.7	18.4	-1.2	-2.2	-1.1	-1.6
- 비 전 형	31.7	28.7	19.6	23.7	33.8	30.6	19.5	27.0	2.1	1.9	-0.1	3.3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아. 교육·훈련 경험 비율

-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비율은 46.2%로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함
- 정규직 근로자(54.7%) 1.0%p, 비정규직 근로자(32.5%) 2.8%p 각각 하락함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36.4%) 4.1%p, 시간제 근로자(24.9%) 4.1%p, 비전형 근로자(30.0%)는 1.4%p 각각 하락함

< 교육·훈련 경험 비율 >

(단위: %, %p)

	임 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4. 8.	47.9	55.7	35.3	40.5	42.9	21.0	29.0	31.4
2025. 8.	46.2	54.7	32.5	36.4	37.8	22.2	24.9	30.0
증감	-1.7	-1.0	-2.8	-4.1	-5.1	1.2	-4.1	-1.4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

- 임금근로자의 21.0%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71.4%는 노동조합이 없고, 7.6%는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근로자의 29.8%, 비정규직 근로자의 6.6%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였음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61.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정규직 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62.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비정규직 근로자(48.5%)는 0.8%p 하락함

< 노동조합 (가입가능자 중) 가입 비율 >

(단위: %, %p)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2024. 8.	가입가능자 ¹⁾	20.5	29.4	6.0	6.7	7.0	4.6	3.2	4.6
	가입	(61.0)	(62.5)	(49.3)	(51.4)	(49.6)	(72.8)	(41.2)	(55.7)
	미가입 ²⁾	(39.0)	(37.5)	(50.7)	(48.6)	(50.4)	(27.2)*	(58.8)	(44.3)
	가입대상아님 ³⁾	7.4	6.1	9.6	12.4	13.4	4.5	7.6	5.2
	노동조합없음	72.1	64.5	84.3	80.9	79.7	90.9	89.2	90.2
2025. 8.	가입가능자 ¹⁾	21.0	29.8	6.6	7.5	7.7	5.7	2.9	5.3
	가입	(61.1)	(62.8)	(48.5)	(47.6)	(47.2)	(53.7)	(43.9)	(49.3)
	미가입 ²⁾	(38.9)	(37.2)	(51.5)	(52.4)	(52.8)	(46.3)	(56.1)	(50.7)
	가입대상아님 ³⁾	7.6	6.3	9.8	12.2	12.9	5.0	7.4	5.8
	노동조합없음	71.4	63.8	83.6	80.3	79.4	89.3	89.7	88.9
증감	가입가능자 ¹⁾	0.5	0.4	0.6	0.8	0.7	1.1	-0.3	0.7
	가입	(0.1)	(0.3)	(-0.8)	(-3.8)	(-2.4)	(-19.1)	(2.7)	(-6.4)
	미가입 ²⁾	(-0.1)	(-0.3)	(0.8)	(3.8)	(2.4)	(19.1)	(-2.7)	(6.4)
	가입대상아님 ³⁾	0.2	0.2	0.2	-0.2	-0.5	0.5	-0.2	0.6
	노동조합없음	-0.7	-0.7	-0.7	-0.6	-0.3	-1.6	0.5	-1.3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3)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차. 적용임금 형태

- 임금근로자의 적용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57.6%로 가장 높고, 연봉제(21.6%), 시급제(12.2%) 순임
- 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65.0%), 연봉제(30.4%) 순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5.8%), 시급제(28.5%) 순임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월급제(53.0%), 시간제 근로자는 시급제(51.7%), 비전형 근로자는 실적급제(32.2%) 비율이 가장 높음

< 임금지불 적용형태¹⁾ >

(단위: %, %p)

		<전 체>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2024. 8.	< 임금근로자 >	100.0	12.1	5.2	57.0	21.3	3.9	0.4
	○ 정 규 직	100.0	2.4	1.5	64.8	30.0	1.2	0.2
	○ 비정규직	100.0	27.8	11.3	44.5	7.4	8.4	0.7
	- 한 시 적	100.0	27.8	7.3	52.2	9.6	2.6	0.5
	- 시 간 제	100.0	49.5	7.3	34.8	1.9	5.6	0.9
	- 비 전 형	100.0	9.9	28.7	27.2	1.8	31.8	0.6*
2025. 8.	< 임금근로자 >	100.0	12.2	4.7	57.6	21.6	3.6	0.3
	○ 정 규 직	100.0	2.1	1.3	65.0	30.4	1.0	0.2*
	○ 비정규직	100.0	28.5	10.1	45.8	7.2	7.8	0.6
	- 한 시 적	100.0	28.1	7.0	53.0	9.3	2.1	0.5
	- 시 간 제	100.0	51.7	7.0	34.1	1.5	5.0	0.7
	- 비 전 형	100.0	10.2	24.0	30.9	2.0	32.2	0.8*
증감	< 임금근로자 >	0.0	0.1	-0.5	0.6	0.3	-0.3	-0.1
	○ 정 규 직	0.0	-0.3	-0.2	0.2	0.4	-0.2	0.0
	○ 비정규직	0.0	0.7	-1.2	1.3	-0.2	-0.6	-0.1
	- 한 시 적	0.0	0.3	-0.3	0.8	-0.3	-0.5	0.0
	- 시 간 제	0.0	2.2	-0.3	-0.7	-0.4	-0.6	-0.2
	- 비 전 형	0.0	0.3	-4.7	3.7	0.2	0.4	0.2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 값이 25% 이상으로 이용시 유의해야 함

1) 임금 지불 형태는 임금지급 주기가 아닌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시간, 일, 주, 월, 년 등)에 기초하여 파악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비율은 16.3%로 전년 동월대비 1.3%p 상승함
 - 성별로는 남자가 18.5%, 여자는 13.9%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17.4%로 기혼(15.8%)보다 1.6%p 높았음
 -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24.3%로 가장 높았고, 40대(20.7%), 50대(14.8%), 29세이하(14.7%)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 및 혼인상태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단위: %, %p)

	임금근로자	성별		혼인상태별		연령별				
		남자	여자	미혼	기혼	29세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2024. 8.	15.0	17.1	12.6	16.1	14.5	13.4	23.1	18.1	13.6	4.9
2025. 8.	16.3	18.5	13.9	17.4	15.8	14.7	24.3	20.7	14.8	5.5
증감	1.3	1.4	1.3	1.3	1.3	1.3	1.2	2.6	1.2	0.6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시차출퇴근제(33.2%), 탄력적 근무제(30.9%), 선택적 근무시간제(26.7%) 순임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중복응답) >

(단위: %, %p)

	유연근무제 활용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 유형
2024. 8.	(15.0)	12.0	35.0	25.4	15.9	29.5	9.3
2025. 8.	(16.3)	12.2	33.2	26.7	14.2	30.9	8.9
증감	(1.3)	0.2	-1.8	1.3	-1.7	1.4	-0.4

주) ()는 유연근무제를 활용 중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임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48.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중복응답) >

(단위: %, %p)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유형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	재택 및 원격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	기타 유형
2024. 8.	(48.1)	25.2	20.4	34.0	15.5	29.4	8.0
2025. 8.	(48.3)	28.1	19.9	31.3	15.8	30.6	8.1
증감	(0.2)	2.9	-0.5	-2.7	0.3	1.2	0.1

주) ()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 향후 활용 희망에 대한 비중임

<참고1> OECD Temporary Workers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수록하고 있음

* 국가데이터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자료(매년 8월 기준) 기준으로 OECD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

< Temporary Workers >

구 분	2021. 8.	2022. 8.	2024. 8.	2025.8.
○ 임금근로자(천명)	21,724	21,954	22,143	22,413
- Temporary Workers(천명)	5,926	5,870	5,957	6,160
(비중) 임금근로자 대비(%)	(27.3)	(26.7)	(26.9)	(27.5)

< 주요국 Temporary Workers 비중 >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캐나다	13.7	13.4	12.7	11.4	12.0	11.9	11.6	11.2
독 일	12.9	12.5	12.0	10.9	11.5	12.4	12.0	11.4
네덜란드	21.8	21.5	20.2	18.0	27.4	27.7	27.4	26.4
폴란드	26.2	24.4	21.8	18.7	15.2	15.6	15.5	15.1
스페인	26.7	26.8	26.3	24.1	25.2	21.3	17.2	15.9
일 본	-	15.7	15.7	15.4	15.0	15.0	14.9	14.6
영 국	5.9	5.6	5.2	5.4	5.6	5.4	5.3	4.7
한 국	20.6	21.2	24.4*	26.1	28.3	27.3	26.7	26.9

* 출처: OECD. Due to the additional investigation of Fixed-term Workers from 2019, the year-on-year comparison of the non-regular workers should be analyzed separately before and after 2019.

<참고2>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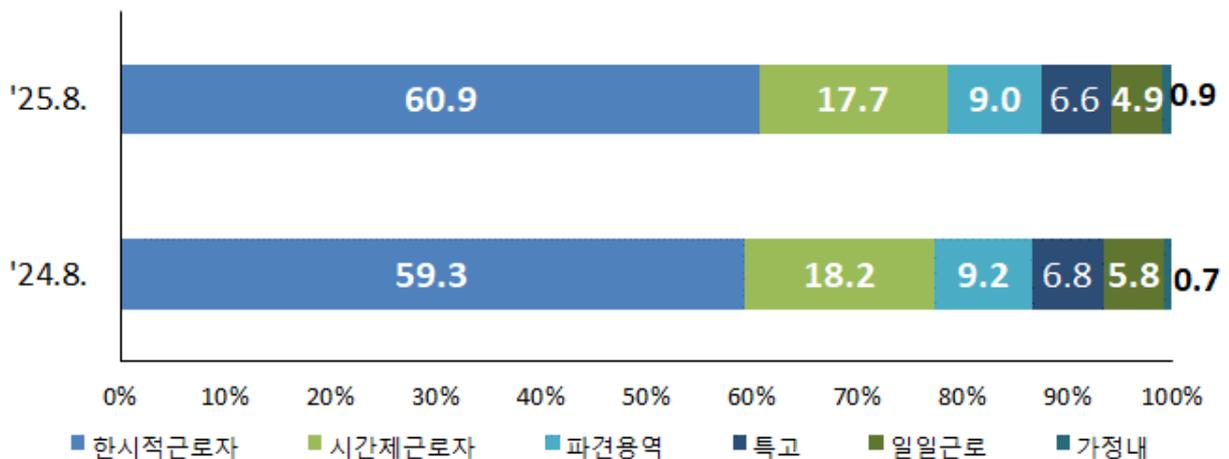
○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중복을 제거해 집계하면 한시적근로자(60.9%), 시간제근로자(17.7%), 파견·용역(9.0%), 특수형태 근로(6.6%), 일일근로(4.9%), 가정내근로(0.9%) 순으로 나타남

* 비정규성이 강한 순서 : ①특수형태근로, ②가정내근로, ③파견·용역, ④일일근로, ⑤한시적근로자, ⑥시간제근로자

< 중복제거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p)

	2024. 8.		2025. 8.		증감	
	천명	비중	천명	비중	천명	비중
< 비정규직 근로자 >	8,459	100.0	8,568	100.0	110	0.0
- 특수형태근로	576	6.8	566	6.6	-9	-0.2
- 가정내근로	63	0.7	75	0.9	12	0.2
- 파견·용역	778	9.2	770	9.0	-8	-0.2
- 일일근로	487	5.8	422	4.9	-65	-0.9
- 한시적근로자	5,017	59.3	5,216	60.9	199	1.6
- 시간제근로자	1,539	18.2	1,518	17.7	-20	-0.5



<참고3> 종사상지위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 상용 정규직 근로자는 1,31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2천명 증가, 임시·일용 정규직 근로자는 73만 9천명으로 3만 2천명 감소함

(단위: 천명, %)

	2024. 8.				2025. 8.					
	상용		임시·일용		상용			임시·일용		
	비중		비중		비중	증감		비중	증감	
임금근로자	16,293	73.6	5,851	26.4	16,641	74.2	348	5,772	25.8	-79
정규직	12,915	58.3	770	3.5	13,107	58.5	192	739	3.3	-32
비정규직	3,378	15.3	5,081	22.9	3,534	15.8	156	5,034	22.5	-47

※ 비중은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임

통 계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27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28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29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30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전체>

(단위: 천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임금근로자	20,045	20,559	20,446	20,992	21,724	21,954	22,143	22,413
정규직	13,431	13,078	13,020	12,927	13,568	13,832	13,685	13,845
비정규직	6,614 (33.0)	7,481 (36.4)	7,426 (36.3)	8,066 (38.4)	8,156 (37.5)	8,122 (37.0)	8,459 (38.2)	8,568 (38.2)
한시적	3,823	4,785	4,608	5,171	5,348	5,259	5,628	5,848
시간제	2,709	3,156	3,252	3,512	3,687	3,873	4,256	4,229
비전형	2,071	2,045	2,073	2,278	2,131	1,957	1,903	1,834

<남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임금근로자	11,171	11,396	11,361	11,517	11,936	11,927	11,908	11,953
정규직	8,236	8,040	8,027	7,941	8,283	8,370	8,293	8,302
비정규직	2,936 (26.3)	3,356 (29.4)	3,335 (29.4)	3,575 (31.0)	3,653 (30.6)	3,557 (29.8)	3,615 (30.4)	3,650 (30.5)
한시적	1,748	2,238	2,079	2,234	2,368	2,349	2,470	2,570
시간제	737	846	915	1,011	1,125	1,143	1,240	1,187
비전형	1,148	1,125	1,212	1,342	1,209	1,090	1,065	1,006

<여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임금근로자	8,874	9,163	9,085	9,476	9,788	10,027	10,235	10,460
정규직	5,195	5,038	4,994	4,985	5,285	5,462	5,392	5,543
비정규직	3,678 (41.5)	4,125 (45.0)	4,091 (45.0)	4,491 (47.4)	4,503 (46.0)	4,565 (45.5)	4,844 (47.3)	4,918 (47.0)
한시적	2,075	2,547	2,529	2,938	2,980	2,910	3,158	3,278
시간제	1,971	2,310	2,337	2,502	2,562	2,731	3,016	3,042
비전형	923	920	861	936	922	866	838	828

1.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3.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연령계층별>

(단위: 천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비정규직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8,568
비중	15 - 19세	2.3	2.0	1.9	1.8	1.9	1.9	1.7	1.3
	20 - 29세	17.0	18.2	17.3	17.5	17.3	17.5	17.3	16.7
	30 - 39세	15.0	14.8	13.8	12.6	12.0	12.2	12.7	13.3
	40 - 49세	19.0	18.0	17.6	17.6	16.2	16.1	15.5	14.1
	50 - 59세	21.8	21.0	20.8	20.7	21.1	20.0	19.6	19.1
	60세이상	24.9	25.9	28.7	29.8	31.3	32.2	33.2	35.5

<산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비정규직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8,568
비중	농림어업	1.1	1.0	1.0	1.0	0.8	0.8	0.7	0.7
	제조업	7.5	8.9	8.1	7.8	8.1	8.0	8.1	7.7
	건설업	12.3	11.4	11.6	11.0	10.4	9.2	8.7	8.0
	도소매업	9.7	9.4	9.7	9.3	9.2	8.7	8.8	8.2
	운수창고업	2.6	2.9	3.1	3.3	3.1	3.3	3.6	4.0
	숙박음식업	9.8	10.2	9.3	8.6	9.5	9.7	10.3	9.5
	정보통신업	1.8	1.7	1.6	2.3	2.5	2.4	2.4	2.6
	금융보험업	4.6	3.7	3.4	3.7	3.9	3.8	3.7	3.8
	부동산업	2.4	2.6	2.4	2.6	2.7	2.6	2.2	2.4
	전문과학기술업	2.2	2.6	2.4	2.6	2.3	2.7	3.1	2.9
	사업시설지원업	12.8	11.6	11.1	11.0	10.7	10.7	10.2	10.1
	공공행정	5.0	5.0	5.6	4.9	4.7	4.8	4.9	4.6
	교육서비스	8.5	8.4	7.9	8.3	8.6	8.4	8.3	8.3
	보건사회복지업	12.7	13.1	15.2	16.8	17.0	18.4	18.3	20.5
	예술스포츠	2.2	2.6	2.4	2.2	2.3	2.6	2.4	2.4
	협회기타서비스	4.0	3.3	3.2	3.0	3.0	2.9	3.2	3.1
	기타	0.8	1.5	1.8	1.5	1.3	1.2	1.1	1.2

<직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 비정규직		6,614	7,481	7,426	8,066	8,156	8,122	8,459	8,568
비중	관리자·전문가	16.3	16.2	15.2	16.3	16.6	17.4	17.2	17.7
	사무 종사자	11.0	11.4	10.6	10.7	10.4	10.6	10.4	10.7
	서비스·판매 종사자	25.9	26.0	25.4	24.4	25.4	26.7	26.8	26.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4	0.5	0.5	0.4	0.4	0.4	0.6	0.5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14.9	14.9	14.8	14.5	13.8	13.2	12.4	13.0
	단순노무 종사자	31.5	31.0	33.5	33.7	33.3	31.7	32.7	31.9

1. 산업·직업분류 명칭은 약칭을 사용(부록2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참조)
2. 추가 포착된 기간제 영향으로 비정규직 규모는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구분하여 증감 비교 가능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근속기간 (개월)	임금근로자	73	71	72	70	72	74	76	78
	정규직	93	94	97	96	97	98	103	105
	비정규직	31	29	29	29	30	32	34	35
평균 취업시간 (시간)	임금근로자	36.6	35.9	37.1	35.4	34.7	33.9	32.4	33.4
	정규직	39.3	38.8	40.7	38.7	37.8	36.9	35.4	36.5
	비정규직	31.2	30.8	30.7	30.2	29.6	28.7	27.6	28.2
월평균임금 (만원)	임금근로자	255.8	264.3	268.1	273.4	288.0	300.7	312.8	320.5
	정규직	300.9	316.5	323.4	333.6	348.0	362.3	379.6	389.6
	비정규직	164.4	172.9	171.1	176.9	188.1	195.7	204.8	208.8
국민연금 가입률 (%)	임금근로자	69.8	69.5	69.8	69.4	70.0	69.6	68.8	68.5
	정규직	86.2	87.5	88.0	88.8	89.1	88.0	88.1	87.9
	비정규직	36.6	37.9	37.8	38.4	38.3	38.4	37.5	37.1
건강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75.5	75.7	76.7	77.0	78.5	78.9	78.6	79.0
	정규직	90.1	91.5	92.6	93.6	94.5	94.3	95.0	95.0
	비정규직	45.9	48.0	49.0	50.3	51.7	52.6	52.2	53.2
고용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71.6	70.9	72.6	75.2	77.0	77.0	77.0	76.2
	정규직	87.0	87.2	89.2	90.9	92.2	91.9	92.3	91.8
	비정규직	43.6	44.9	46.1	52.6	54.0	54.2	54.7	53.7
퇴직급여 수혜율 (%)	임금근로자	73.9	74.0	73.2	74.0	74.9	76.3	76.8	76.6
	정규직	89.9	91.7	91.9	93.5	94.0	94.5	95.6	95.6
	비정규직	41.5	42.9	40.4	42.7	43.0	45.3	46.4	46.0
상여금 수혜율 (%)	임금근로자	70.4	68.8	68.8	67.1	69.9	70.1	70.3	70.2
	정규직	86.4	86.4	86.6	86.7	88.8	88.1	89.0	89.0
	비정규직	37.8	38.2	37.6	35.7	38.5	39.4	40.1	39.7
시간외수당 수혜율 (%)	임금근로자	48.1	48.2	50.0	50.6	53.0	54.0	54.6	54.6
	정규직	59.7	60.9	62.8	64.9	67.5	67.8	68.7	69.1
	비정규직	24.6	25.9	27.5	27.6	28.9	30.5	31.8	31.2
유급휴가 수혜율 (%)	임금근로자	62.8	62.9	64.6	64.7	66.3	67.7	68.5	68.8
	정규직	77.9	80.1	82.1	83.3	84.5	85.6	86.9	87.2
	비정규직	32.1	33.0	34.1	35.1	35.9	37.2	38.7	39.0

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2. 퇴직급여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의 수혜자 기준임
3.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2024			2025			증 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22,143	13,685	8,459	22,413	13,845	8,568	270	160	110
서울	4,367	2,694	1,673	4,375	2,696	1,679	8	2	6
부산	1,351	779	572	1,383	830	553	32	51	-19
대구	932	579	353	913	561	353	-18	-19	0
인천	1,413	863	551	1,384	851	533	-29	-12	-18
광주	602	370	232	633	354	278	31	-16	46
대전	626	379	247	643	385	258	17	7	11
울산	474	303	170	478	305	173	4	2	3
세종	173	126	48	177	124	53	4	-2	5
경기	6,230	4,055	2,175	6,320	4,180	2,140	90	125	-35
강원	628	330	298	611	294	318	-17	-37	20
충북	684	410	274	705	428	277	21	18	3
충남	915	579	336	938	566	373	24	-13	37
전북	670	385	285	693	405	288	23	20	3
전남	624	336	288	631	316	315	8	-19	27
경북	932	557	376	978	592	386	46	36	10
경남	1,252	776	476	1,278	798	480	26	22	4
제주	272	166	106	274	162	112	2	-4	6

부 록

-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 2.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부록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 실시 배경

-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 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추진 경과

- 2003~2006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07~2016 : 매년 3월,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17~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 약 36,000가구 내 상주하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26개 항목

- | | |
|---------------------------------|-------------------------|
| - 계약반복·갱신여부('03) | - 단기근로여부('03) |
|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 사유('03) | - 향후기대 근속기간('03) |
| - 근속기간 제한이유('03) | - 취업형태('03) |
| - 임금 지급업체('03) | - 실제 근무 사업체(장)('03) |
| - 특수형태근로 종사여부('03) | - 주로 일한 장소('03) |
|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 사유('06) | - 사회보험 가입 여부('04) |
| - 근로복지 수혜여부('04) | - 노동조합 가입여부('04) |
| - 교육·훈련 경험여부('07) | - 임금 형태('04) |
| - 계약서 서면작성여부('04) | - 3개월간 평균 임금('04) |
|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15) | -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계획 여부('15) |

* () : 최초 제공시점

□ 용어설명

- 월평균임금 최근 3개월(6~8월) 동안 주된 일에서 받은 각종 상여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수령액(세금공제전)의 평균임금
- 비정규직 근로자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 비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비전형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
 - 파견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 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 내 근로자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부록2 한국표준 산업·직업 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

<p>A 농업, 임업 및 어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p>B 광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p>C 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p>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p>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p>F 건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p>G 도매 및 소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p>H 운수 및 창고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 운송업 ▪ 51 항공 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p>I 숙박 및 음식점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p>J 정보통신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 및 영상·오디오를 제공 서비스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p>K 금융 및 보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4 금융업 ▪ 65 보험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p>L 부동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 부동산업 	<p>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p>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p>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P 교육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교육 서비스업 <p>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p>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p>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p>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 가구 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p>U 국제 및 외국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년) 기준임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의회·정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 25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
- 2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의사, 교수, 변호사, 관세사, 작가 등

3 사무 종사자

- 31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 32 자재·생산 및 운송 사무직
- 3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 34 금융 사무직
- 35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 3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 37 일반 지원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 43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4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사,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전기공, 도배공, 인터넷수리원,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 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예) 건설단순종사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2024년) 기준임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 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 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대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1. 근로감독강화 (중략)**1.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중략)**

2002년 7월 22일

노 사 정 위 원 회

* 별첨: 비정규 근로자 관련 통계 개선방안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시적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를 '회사가 (중략)...다면 귀하는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로 보완한다.
 -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임시적·한시적 근로자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한다.
- 호출근로를 파악하는 문항 중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체 규모를 조사한다.

2. 사업체 조사

- 비정규 근로자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설계한다.